

진도군, 맞춤형 일자리 정책 확대...누구나 구직 참여

104개 사업에 327억 투입...지역 정착 기반 강화 공익형 일자리·중장년 재취업 등 4000여명 혜택

진도군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대규모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총 327억원을 투입해 104개의 일자리 사업을 추

진하고, 약 4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은 공공부문의 직접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과 중장년 등 연령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민간 일

자리 창출 등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는 약 132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과 구직자를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환경정비, 지역관리, 공공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공익형 일자리를 운영한다.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고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과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한 지원 정책도 강

화한다. 해당 사업에는 약 125억원을 투입해 청년 인턴십과 직무 경험 지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장려금 지원 등의 취업 정책과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창업스쿨을 운영해 창업 정신과 전략, 계획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식품 온라인 판매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해 시제품 개발, 자문,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 성과를 창

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중장년층을 위한 재취업 지원,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통해 경력과 경험 활용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힘을 쏟아 청년과 중장년 약 73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도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수산업, 관광, 지역공동체 기반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 약 70억원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역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 부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추진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 군민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진도의 특성과 산업 여건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고흥군은 4월부터 나로우주센터 실물체 전시관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우주항공해설사와 함께하는 '주말 정기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진은 나로우주센터 실물체 전시관 모습.

고흥, 나로우주센터 4월부터 주말 정기 해설 가동

우주항공해설사 '실물체 전시관' 도슨트 투어

고흥군은 다음달부터 나로우주센터 실물체 전시관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우주항공해설사와 함께하는 '주말 정기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심장부인 나로우주센터 실물체 전시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전문지식과 고흥군 해설사의 현장감이 만난 '프리미엄 도슨트' 서비스다. 나로우주센터 실물체 전시관에서 하루 3회 진행되는 이번 해설은 실제 우주로 향했던 발사체와 부품들을 매개로 관람객들에게 가

장 정확하고 생생한 우주항공 정보를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난 2024년 전곡 최초로 우주항공해설사 12명을 양성해 활동 중이며, 이들은 고흥만의 차별화된 우주항공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래 전략산업을 알리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기 해설 프로그램은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나로우주센터 일원에서 개최

되는 '제16회 고흥우주항공축제'를 앞두고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비중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항우연 전문가의 전문을 거친 수준 높은 해설을 통해 관람객들이 우주 과학의 원리와 감동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며 "대한민국 우주항공 중심도시로서 고흥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광양 다나소아과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재지정

2028년까지 운영...아간·휴일 진료 등 의료공백 해소

광양 다나소아과의원이 전남도로부터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재지정돼 2028년 3월 1일까지 2년간 운영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아간과 휴일에 갑자기 증상이 나타난 소아환자가 응급실보다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재지정된 기관은 중동에 있는 '다나소아과의원'이다. 다나소아과의원은 평일과 휴일에 지역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외래 진료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에 따라 아

간이나 휴일에 경증 소아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실이 아닌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병원 인근의 '중대형약국'도 심야약국으로 함께 지정돼 진료 후 약 조제가 가능하도록 연계 운영되며, 심야약국 지정 역시 2년간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달빛어린이병원 재지정으로 아간과 휴일에도 아이들이 지역 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소아 진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28회 함평나비축제 성공기원 '호랑나비 날리기'

군민 등 100명 참여..."관광객 만족하는 축제 구현"

함평군의 대표 볼거리인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의 개막을 1개월여 앞두고 행사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호랑나비가 함평 상공을 날아올랐다. 24일 군에 따르면 최근 함평엑스포공원 수생식물관에서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성공 기원 나비날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지역 기관사회단체장과 함평군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평지역을 대표하는 나비인 호랑나비 28마리를 비롯하여 직접 길러낸 여러 종류의 나비를 날려보냈다.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는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4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특히 봄꽃이 만개하는 4월, 새로워진 캐빈하우스에서 많은 분이 순천 정원의 진수를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규 기자 6263739@gwangnam.co.kr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나비 날리기', '나비 먹이주기' 등 기존 인기 프로그램을 확대한 '나비와 함께 알뜰' 체험과 어린이 관광객에게 생애 놀이 교육을 제공하는 '나비파크'가 첫선을 보일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올해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 봄 느낌이 물씬 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나비대축제는 600여 공작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축제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축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개개 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 따스한 봄 '정원위케이션 캐빈하우스' 새단장

2억6000만원 투입 자연 속 업무·휴식 극대화

순천시는 정원 속 깊은 휴식과 창의적인 업무가 하나로 어우러진 '정원위케이션 캐빈하우스'의 출입문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이용객들에게 일과 재충전이 완벽하게 조화되는 최적의 위케이션 환경을 선사한다. 이번 리모델링은 이용객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기존 출입문의 구조적 불편함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총 2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5동 전체 캐빈하우스의 출입문을 견고한 강화도어와 최신형 스마트도어락으로 전면 교체했다. 기존 연약한 소재와 잠금 방식은 이용객들이 출입 시 번거로움을 느끼거나 야간 보안에 대해 심리적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과 기능성을 동시에 잡은 '통창형 강화도어'를 도입했다.

새로 설치된 출입문은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업무 몰입도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해 정원의 풍광을 실내에서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문을 닫는 순간 외부와 분리된 나만의 완벽한 치유 공간이 완성되는 셈이다. 시의 이러한 세심한 인프라 개선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최근 시는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6 위케이션 우수모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억원의 지원금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고, 향후 위케이션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자 편의시설 고도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원위케이션은 단순한 정원의 풍광을 실내에서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문을 닫는 순간 외부와 분리된 나만의 완벽한 치유 공간이 완성되는 셈이다. 시의 이러한 세심한 인프라 개선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봄꽃이 만개하는 4월, 새로워진 캐빈하우스에서 많은 분이 순천 정원의 진수를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영암형 공공주택 입주 청년·신혼부부 모집

군, 내달 17일까지 접수...삼호읍·학산1H 26호

영암군은 지역 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중인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도에 기관공급 협약을 체결하여 총 200호의 공공주택을 영암형 공공주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임대보증금 없이 일정금액의 예치금을 받고 2년간 거주(2년 연장 가능), 최대6년간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에 30호, 2025년에는 62호 등 총 92호가 입주완료 했고, 올해 추가 공급할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은 삼호읍 용암1H 1단지 2호, 용암1H2단지 10호, 학산1H1단지 14호 등 총 26호가 공급되며, 신청 후 주거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 할 계획이다. 입주자격은 신청일 현재 영암군에 주민

등록을 둔(또는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 무주택자이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인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입주자 현황을 보면 총 98명으로 타 지역에서 41명이 유입됐고, 57명의 청년과 인근도시로 유출되지 않아 청년인구 유입 및 지역내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정책에 기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흥 영암군 도시디자인과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많은 분들이 영암형 공공주택에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형 공공주택 입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에 있고, 안내는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061-470-2451)에서 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